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음 9월 4일) 제191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엄마의 밥상 시행 3주년’ 전주시가 지난 20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엄마의 밥상 시행 3주년을 기념해 그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의 밥상 사업을 후원해온 각계각층의 후원자와 배달업체 종사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진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후원자들, 배달업체 종사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4면>

시도지사협, 제2국무회의 앞두고 체질 개선 분주

회의는 26일 전남 여수서

제2 국무회의의 시범 운영을 앞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체질 개선에 분주하다. 의결 제도 개선과 분담금 증액 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제8회 전국체전 개막일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 더베이스호텔에서 제37차 협의회 총회를 연 시·도지사들은 제2 국무회의의 대응 체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출석 회원 만장일치였던 의결 방식을 다수결로 바꿀 방침이다. 시·도지사 친목 모임 성격이었던 협의회가 앞으로 제2 국무회의에 유효 의제를 결정하는 사실상 지방정부 관련 정책 의결기구로 격상하기 때문이다. 제2 국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협의회 총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지사의 서면 또는 대리 참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소속 정당과 시·도정 운영 철학이 다른 17개 시·도지사에게 다수결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협의의 결속력을 약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앞서 실무협의회가 논의한 시·도 분담금 증액을 승인했다. 협의회의 연 예산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게 된다. 협의회는 제2 국무회의의 준비를 위해 공무원 3명을 파견하고 전문인력 3명을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정책 연구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마련한 협의회는 국회 통과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도 입장권 구매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첫 제2 국무회의는 오는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열린다.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

전북 대표 명품 1000리길 선정 · 홍보

걷기 행사 · 안내체계 구축 · 가이드북 제작 등도, 내년 전라도 천년 맞아 마케팅 체계 구축키로

전북도는 지난 20일 2018년 전라도 천년을 기념, 전북 자존의 시대에 걸맞는 시군별 대표길을 '전북 대표 1000리길'로 선정, 홍보·마케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도내 지역에 생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는 길 중에서 걷기 좋고, 전북의 생태·역사·문화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시군별 대표길을 '길'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쳐 '전북 대표 1000리길'로 선정한다. '전북 대표 1000리길' 중심으로 민간 단체 및 걷기 동호회와 연계하여 걷기 행사를 개최하며,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홍보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선정된 '전북

대표 1000리길' 중심으로 노선 및 편의시설 정비, 회귀노선 개발, 안내체계 구축 등 걷기 좋고 스토리가 있는 길로 디자인화한다. GPS정보를 기반으로 통합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길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교통수단, 먹거리, 주변 관광자원 연계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갖는다. 또한 '전북 대표 1000리길' 알릴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연계한 동호회 초청 걷기행사, 시군별 축제와 연계한 걷기 행사, 인접 지자체 방문 걷기행사, 계절별, 코스별 상품개발 등을 통한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환경녹지국에서 전라도 천년 기념 '전북 대표 1000리길' 사업을 앞두고 성공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21

일 부안 변산 마실길에서 환경녹지국 직원들과 함께 걷기행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신현승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대표 1000리길 걷기는 '길'이라는 전북의 생태·역사·문화와 '걷기'라는 건강 운동을 결합한 생태관광의 표본이다"며,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하여 우리도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14개 시군의 생태·역사·문화가 결합된 우수한 대표길을 '전북 대표 1000리길'로 선정, 마케팅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더불어 우리도가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완주군 위봉사 일원 '고종시 마실길 걷기행사', 장수군 '뜯봄샘 생태문화체험 걷기행사'와 11월 4일에는 군산시 청암산 일원에서 '2017 생태관광축제 및 청암산구슬피 등산축제' 일환으로 군산호수 및 청암산 걷기행사가 펼쳐진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기초연금 확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부의 "기초연금 확대로 노후소득을 튼튼하게 보장하겠다"고 기초연금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당당하고 즐겁게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 의료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이다. 의료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치과 치료의 부담은 줄이고 치매는 국가가 책임 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자녀들의 직장, 손자손녀의 취업문제가 걱정될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제를 튼튼히 세워서 자손들이 신나게 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코레일 - SR 통합 전라선 SRT 신설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황현 도의회 의장, 강력 촉구 전라선 KTX 운행횟수 확대 요금 10% 인하 등 건의안 제출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충북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코레일-SR 통합 및 전라선 SRT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황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2016년 12월, 수서발고속철도(SRT)가 개통됐지만 전주와 여수 등 전라선 이용 주민들은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동남부지역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데다 익산·오송역 등에서 환승해야 하는 철도이용권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라선 이용 주민들은 SRT

가 운행되는 호남·경부선 주민보다 평균 10% 이상 비싼 요금과 낮은 차량의 열차를 이용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어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박탈감마저 겪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황 의장은 그러면서 "SRT와 코레일 KTX를 통합하면 차량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도 전라선 등 기존노선에 대해 SRT 운행이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열차운행 횟수 확대 등 전체 고속철도 매출이 올라 SRT는 물론 기존 KTX 요금 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황현 의장이 제출한 전라선 KTX 운행횟수 확대 및 SRT 노선 신설 △KTX 요금 10% 인하 △호남선 KTX 운행횟수 확대 △코레일과 SR 통합운영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김진성 기자

고즈넉한 여유가 있는 명품 한옥으로 떠나는
'가을 힐링 여행'

잠이 더 아쉬운 계절,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남원예촌 by 컨싱턴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남원예촌 by 컨싱턴은 이랜드 호텔레저 사업부와 남원시가 함께 선보인 명품 한옥으로, 화학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로 문화재 명정이 공평하다 훈을 담아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기품 있는 한옥의 멋이 느껴집니다. 코골에 달는 나무, 흙냄새와 새들의 맑은 노랫소리, 창가에 스미는 햇살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머물 자체가 휴식이 되는 남원예촌에서 비움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가을의 운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원예촌 남원시